



2011년 상반기까지 경기둔화 지속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2011년 한국경제 전망 발표

2010년 한국경제는 양과질 양면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2년 만에 잠재성장률은 크게 상회하는 성장세를 시현했고, 성장의 중심축도 정부부문에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2010년 하반기부터는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 다음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11년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전망' 자료를 정리·요약한 것이다. (편집자주)

□ 최근 한국경제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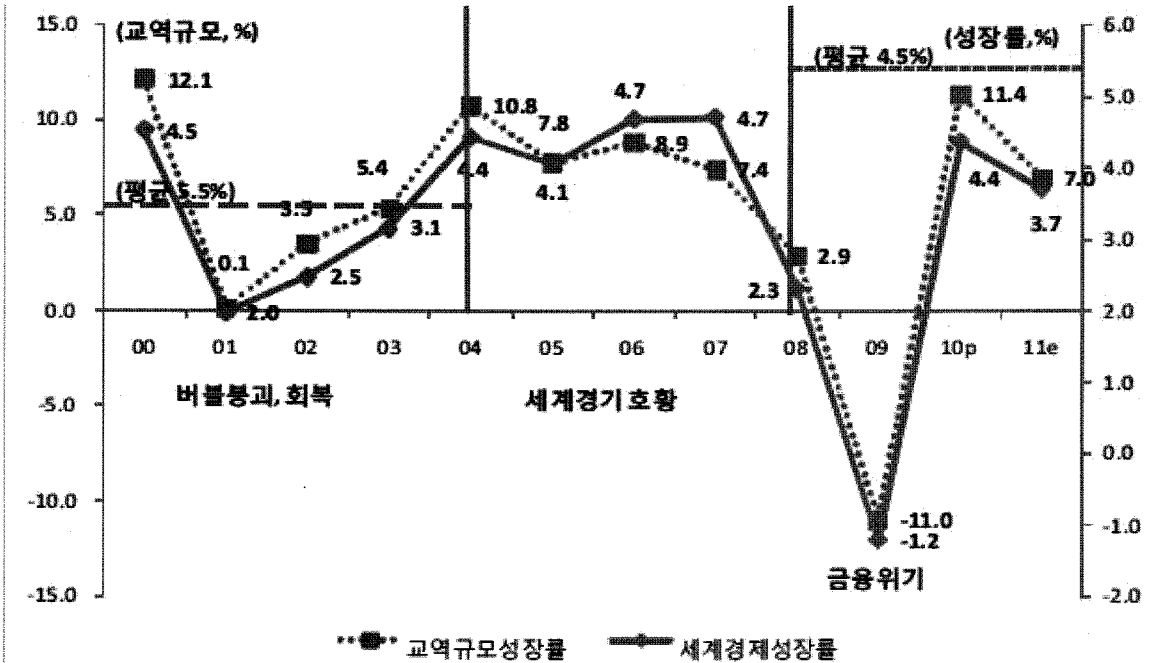
▶ 실물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

2010년 1/4~3/4분기 중 실질 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하였다. IT,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선전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된 데다, IT 산업

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0년 1/4~3/4분기 중 수출(통관기준)과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4%, 28.3% 증가하였다.

작년도 경제의 특이점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성장에서 민간 주도의 성장으로 그 주체가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 세계경제성장률 & 무역규모 추이 〉



자료 : 성장률(IMF, Global Insight 평균), 교역규모(IMF)

국민소득계정 지출항목 중 정부소비만 2009년보다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었고 2010년 1/4~3/4분기 중 정부소비는 3.3% 증가하며, 2009년(5.0%)보다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 수출 투자확대 지속

2010년 한국경제는 수출호조→투자확대→고용개선→소비증가 등으로 대외부문 호조가 내수로 파급되는 모습을 시현하였다.

수출은 세계경제 회복,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수출 확대 등으로 30% 전후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글로벌 경기반등,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지속하며 설비투자지수는 상반기 전년동기 대비 24.8% 증가한 데 이어, 3/4분기에도 27.7% 증가하였다.

고용도 민간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 폭이 확대되면서 3/4분기 중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26.2만명 늘어났고, 10월에도 전년동월 대비 24.1만명 증가하는 등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 향후 경기흐름은 불확실성 증가

국내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 재정건전성 강화 움직임, 환율갈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상반기 중 중국 등 신흥국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하였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도 횡보세를 지속하였다.

또한 주택경기 부진, 가계부채 확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상승 등 대내적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최근 경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뚜렷하다.

□ 2011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성장률 4.6%→3.8%

2011년 세계경제는 2010년 하반기의 성장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과잉설비 등으로 기업의 투자심리가 크게 개선되기 어렵고, 가계도 악화된 고용현황과 디레버리징 등으로 소비를 크게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민간 자율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 국가가 재정정책의 기조를 건전화 모드로 전환함에 따라 경기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흥국들도 수출과 내수 성장세가 동시에 둔화되면서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표출되고 있는 환율갈등 등 국가 간 공조약화 내지 갈등심화는 세계교역을 둔화시켜 세계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다. 환율갈등은 어느 정도 진정되기는 하겠지만 재연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빚어진 자원공급 불안은 국가 간 자원 확보 경쟁 심화 및 자원가격 앙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 세계경제성장률 4.6%→3.8%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는 하반기 이후 미약하나마 상승 반전할 전망이다. 미국은 FRB의 동화확대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가계부채 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가계소비 회복이 가능할 전망이다. EU는 재정불안에 대한 위기감이 저하되면서 금융불안이 완화됨에 따라 신용공급 및 기업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신흥국은 선진국 경기개선에 힘입은 수출 증가, 외화유입 확대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유가 전망

(단위 : 달러/배럴)

	2009년	2010년			2011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두바이유평균	61.9	77.1	79.1	78.1	81.3	82.9	82.1

□ 국제 원자재 시장 전망

▶ 두바이유 배럴당 78.1달러→82.1달러

2011년 두바이유 가격은 전년보다 5.1% 상승한 배럴당 82.1달러로 전망되고 있다. BRICs 국가를 중심으로 한 신흥국의 견조한 석유 수요 증가와 글로벌 유동성 증가 및 달러 약세로 인해 유가 상승 추세는 201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의 긴축과 유럽발 리스크의 재발 가능성 등 국제유가의 하락 요인들이 2011년에도 여전히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평균 81.3달러에서 하반기 평균가격이 82.9달러로 상반기보다 소폭 높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 산업용 원자재 가격도 달러 약세 등 금융요인으로 인해 상승세가 지속되나 2010년 하반기보다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년 전기동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14.1% 상승한 8,593달러/톤, 철광석은 7.1% 상승한 165달러/톤, 소맥은 19.4% 상승한 7.02달러/부셸로 전망된다.

□ 2011년 한국경제 전망

▶ 2011년 연간 성장률 3.1%(상반기)→4.4%(하반기)

2010년 상반기까지 높은 성장세를 보이던 한국경제가 2010년 하반기 들어 둔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10년 7월 102.2를 고점으로 3개월째 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 2011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0년의 5.9%에서 3.8%로 하락할 전망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장기 성장 수준에서 이탈했던 한국경제가 장기 성장 궤도로 재진입하기에는 여전히 경기의 복원력과 탄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1년 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은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글로벌 금융불안 요인 상존, 통상마찰 확대 가능성 등 대외 환경변수들의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정부의 경기부양력 약화, 금이 인상 등에 따른 기업과 가계의 채무부담 확대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2011년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중에 저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상승하는 상고하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2011년 민간소비 3.4%(상반기)→3.7%(하반기)

2010년 민간소비는 소득 증가, 양 자산효과 확대 등으로 연간 4.1% 증가하며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2011년 민간소비는 고용 개선세 둔화, 이자 지급 부담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3.6% 증가에 그쳐, 2010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및 하반기 중 전년동기 대비 각각 3.4%, 3.7% 증가하며 상저하고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상반기에는 경기 상승 모멘텀 약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가계의 이자 지급부담 확대 등으로 소비 증가세가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국내외 경기흐름 개선으로 고용상황이 나아지면서 소비가 점진적으로 회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2011년에는 소비가 소득에 의해 결정되는 안정적인 관계로 수렴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1년 설비투자 5.9%(상반기)→4.4%(하반기)

2011년 상반기 설비투자는 2010년 공급능력 확충에 따른 기저효과 및 수출 증가세의 대폭 둔화로 전년동기 대비 5.9%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 및 국내기계수주의 증감을 추이를 볼 때, 제조업 공급능력은 이미 상당부분 확충된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하반기 설비투자는 금리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설비투자의 비용 증가 및 소비 증가폭 둔화로 전년동기 대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1년 건설투자 1.9%(상반기)→1.4%(하반기)

2011년 상반기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투자의 증가폭 둔화 속에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투자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9% 증가할 전망이다.

토목건설 투자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 등 대형 국책 사업을 중심으로 지속 되겠지만, 정부의 재정여력 축소 및 2010년 상반기부터 하락한 토목건설 수주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2011년 하반기 건설투자는 대형 국책사업의 마무리 공사 진행 및 내수경기 회복에 따른 건물건설 투자의 회복으로 전년동기 대비 1.4% 증가할 전망이다.

▶ 2011년 대외거래 8.2%(상반기)→9.7%(하반기)

2011년 수출 증가율은 세계경제 회복세 둔화, 수출시장의 경쟁 격화 등 대외환경 악화로 인해 한 자릿수인 9.0%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상품수지 흑자 축소와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으로 2011년 경상수지는 2010년보다 크게 축소되겠지만 여전히 흑자를 유

지할 전망이다.

2011년 한국경제 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의 하락으로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년 대비 13.7%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며 무역수지 흑자는 2010년 410억 달러에서 2011년 249억 달러로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2011년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흑자가 줄어 들고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2010년 337억 달러보다 크게 감소한 171억 달러 흑자가 예상된다.

▶ 2011년 소비자물가 3.2%(상반기)→2.5%(하반기)

2010년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공업제품 및 서비스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1~11월 중 농축산물 및 석유류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9.4% 상승하며, 동 기간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2.9%)을 3배 이상 상회하였다.

2011년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 급등세 진정, 원화가치 상승,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에는 임금 및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원화가치 상승,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5%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실업률 3.6%(상반기)→3.3%(하반기)

2011년은 경제 성장세 둔화와 정부지원 축소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의 둔화 등 민간부문의 활력 저하로 제조업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힘들 전망이다.

또한 자영업 구조조정 지속 및 민간소비 증가율의 하락 등은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의 제약요인



이 될 예정이다.

2011년 실업률은 2010년 대비 0.3%p 하락한 3.5%로 예상되고, 반기별로는 상반기의 3.6%에서 하반기에는 3.3%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1년 금리 4.9%(상반기)→5.2%(하반기)

2011년 시장금리(3년 만기 회사채 AA-기준)는 2010년보다 상승하여 평균 5.1%가 될 전망이다.

상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예상되나 외국인 채권 순매수 지속으로 인해 상승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순매수가 지속됨에 따라 시장금리 상승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경기회복 기대로 경제주체들의 자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금리가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의 채권 순매수 규모는 상반기에 비해 둔화되면서 시장금리 하향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할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1,090원(상반기)→1,070원(하반기)

향후 세계적으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화 강세가 예상된다. 달러화는 미국의 확장적 통화정책 지속, 글로벌 환율갈등과 국제통화질서 개편 논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전망이며 한국도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를 통한 달러화의 유입 지속, 워노하의 저평가 국면 등으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중으로는 원/달러 환율이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하고, 하반기에는 하락 속도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남유럽 재정위기 우려, 중국의 금융긴축 등, 대내적으로는 당국의 자본유출입 규제 시행 등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요

동칠 가능성이 상존해 있다.

□ 결론

2011년은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악화되는 성장 탄력을 회복하고 반복되고 있는 대내외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 정상화 과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향후 유사시 정책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정건전화를 추진하되 경기회복력 및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금리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 정상화를 시도하되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 국내외 경제흐름을 고려해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해 급격한 자본유출입으로 인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 자본유출입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 및 규제 강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자본규제는 자본시장을 통한 외국인 자금(증권투자수지 계정)과 은행을 통한 외국인 자금(기타투자수지 계정) 유출입에 대해 분리해 추진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장 구조 개선을 통한 체질 강화, 완화의 글로벌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력 강화를 위해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차세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에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경감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진입 장벽 등의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